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 무 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복사단 입단식/졸업식

지난 12월 14일에 복사단 졸업식과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황 애이든 (Aidan Hwang)은 지난 7년동안 봉사 후 복사단을 졸업했으며 신입 복사로는 Anthony Shin (안토니오), 정솔 (리디아), 이지원 (노엘라)가 입단하였습니다.

복사단 봉사의 길을 선택한 아이들이 이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신자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송년 울뜨레아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에 본당 꾸르실료의 송년 울뜨레아가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한해 동안의 꾸르실료 활동 및 현황을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꾸르실료내 여덟개 팀의 장기자랑과 공연으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복음선포의 사명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5-6절)

주님이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오실 분,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한 놀라운 이적들은 명백히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표지들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틀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특히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복음 선포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선포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가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자들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자들을 고쳐내지는 못한다 해도 병자들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경청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보탤 수는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치유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치유되었다 해도 한시적인 것이고 다 죽고 맙니다. 주님은 하느님 사랑의 표지로 치유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려는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다름없음을 이사야 예언자는 수차 강조합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이사 50,6)

저 변두리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메시아 도래의 표징일 것입니다.

존재는 사명으로 규정되나 봅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요한 세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재가 아니라 한순간 창공에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소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헌신하고 형제애를 나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대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실 분을 기다린다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서춘배 아우구스티노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대림시기 (3)
대림초의 색과 의미

대림초는 대림환을 만든 사철나무 위에 초 4개를 꽂아 두고, 구세주의 탄생이 임박함을 알려주기 위해 매주 하나씩 촛불을 밝히며 늘려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철나무는 인간에게 내려질 새 생명을 뜻하고, 4개의 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4천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의 색깔이 진한 보라색에서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서 부터 밝은 빛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를 켜는 순서는 (보라 → 연보라 → 분홍색 → 흰색)의 순으로 1주간에 하나씩 늘려가며 밝히게 되며 각 초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림 1주의 보라색 초는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를 의미하고, 대림 2주의 연보라색 초는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속죄와 권유를 의미합니다. 대림 3주의 분홍생 초는 구세주 탄생의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그리고 대림 4주의 흰색 초는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을 드러냅니다.

Men's meeting

지난달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형제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만나 함께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성당을 위해 각자 헌신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형제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나눔과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다니엘 수녀님 피정

지난 12월 14일에 10시 교중 미사 성가단에서 안 다니엘 수녀님을 모시고 피정을 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어둠과 불신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가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짧게라도 나누고 성가 연습을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사와 성체조배를 자주 하면서 내적, 외적 침묵으로 기도하여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성가를 봉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녀님께서 성체조배 시 하시는 기도 (Jesus, I love you / Jesus, My God, My Lord / Jesus, thank you for being here / Jesus, help me to Holy 등)도 나누어 주시어 어떤 마음으로 신앙 속에서 성가를 연습하고 봉헌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셨습니다.

교구 교리교사 연수회 소감

지난 11월에 교구 주최 교리교사 연수회를 다녀온 선생님들이 주보에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몸의 신학을 통해 우리의 몸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공간 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아픔에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큰 감동이 되어,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채여혜 글라라 선생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토리텔러가 되라는 가르침이 제 맘에 크게 새겨졌습니다.

- 민지영 로사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과 이름인가요?

- Jesus Christ를 얼핏 들으면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이”,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호칭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 예를 들어 왕이나 예언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력은 무엇이고 왜 정하게 된 걸까요?

- 전례력은 교회가 전례를 지내려고 만든 달력입니다. “전례”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으로 그런 은혜로운 사건을 때맞춰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1년을 주기로 날수를 계산해 표시한 달력을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 전례 시기는 크게 삼등분하여 연중시기, 사순과 부활시기, 대림과 성탄시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반드시 기념해야 할 대축일과 축일과 기념일을 표시합니다.
- 전례력의 한해의 시작과 마침 역시 일반 달력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전례력에서는 연중 시기가 끝나고 대림 시기가 시작될 때, 즉 대림 1주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례력에서 한해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는 주간의 토요일입니다.

[핸드벨 연주곡 소개]

본당 핸드벨 팀인 마니 안젤리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주일 10시 미사에서 한달에 2번 연주합니다.

12월 21일 연주곡

- **곡 명** :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
- 곡 해설 :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담은 전통 성가로, 단순하고 순환적인 선율이 마음의 고요를 이끌며, 주님의 평화를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공지사항

1. 대림 4-5주간 모임 안내

- 12월 24일 (수)
  - 대림 4주간 수요일 미사(오전 11시)
  - 성탄 밤 미사(저녁 8시 30분)
- 12월 25일 (목)
  - 성탄 낮 미사(8시, 10시)
- 12월 26일 (금):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 12월 28일 (일)
  - 루가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학생 전례부, 성가대 감사 디너 (오후 3시)
  - 예수님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 (저녁 6시)

2. 주일학교 CCD 첫 영성체반 등록 안내

- 2026년 첫 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 3학년 이상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
- 등록 : 12월 14일 (일) - 1월 11일 (일)까지
  2시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신청서는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세례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수업 일시 : 2026년 1월 21일 (수) 저녁 7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8시 30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624-8196

3. CCD 주관 스낵 도네이션 Drive

- 일시 : 12월 21일 (일) 오늘까지
- 장소 : 하상관 로비, 친교실 도서관 앞
-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Fairfax Co. 경찰 및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낵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도네이션 스낵 종류 : 초코파이, 고소미, 에너지바, 게토레이, 너트 믹스, BEEF STICK, 컵라면
- 젤이나 벤모로 현금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젤 : 703-201-2488
  벤모 : @Heawan-Chris
- 문의 : 윤혜완 아가다 703-201-2488

4. 2025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송년 행사

- 일시 : 12월 28일 (일) 오후 6 - 8시 30분
- 장소 : 친교실
- 참석 인원 : 350명
- 회비 : 20불 (14세 이하 청소년 및 75세 이상 형제 자매님은 무료)
- 참가신청 : 12월 7일(일) 부터 매주일 미사 후 성당 로비에서 접수 받습니다.

5. 학생 전례부, 성가대 감사 디너

- 일시 : 12월 28일 (일) 오후 3시 30분 -5시 30분
- 장소 : 하상관
- 일년동안 학생 미사 전례를 위해 봉사하며 수고해 준 학생 전례부와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6. 주일학교 CCD 성탄제 (Christmas Open Festival)

- 일시 : 1월 11일 (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본당 주일학교 CCD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 공연 (연극, 노래, 춤)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성당 젊은 신자들이 점점 줄어든다 걱정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과 젊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어버이 성서 모임 신약 성서 사십 주간

- 2026년 1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약 성서 사십주간을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목요일 저녁 8시
- 신청 마감 : 2026년 1월 11일
- 문의 : 오재노 로사 703-772-7275

8.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3일(금)
  오전 11시 미사 후 오후 12시 성당 출발
  (점심 제공)
- 구간 : National Mall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 참가 신청 : 1월 18일(일)까지 친교실 (선착순55명)
-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상준 프란체스코 703-439-8992

9. Giving Tree

- 산타가 되어주세요!
- 대림 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하상 까리따스가 마련한 Giving Tree에는 원주 지역 시설과 본당을 비롯해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등의 850명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 한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10. 2026 교무금 약정서 안내

- 죄송합니다. 올해는 교무금 약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리는 2026년도 교무금 약정서를 12월 말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 동안 주보대에 교무금 약정서를 두겠습니다. 본인 것도 주변의 다른 교우분들 것도 함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작년도 교무금 내신 것 확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 2025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정산서 발급 관계로 2025년 교무금 납부를 12월 28일 (일)에 마감합니다.
- 교무금을 정산하실 교우분들께서는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약정하신 교무금을 봉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 성탄 미사 안내

-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 일시 : 12월 24일 (수) 저녁 8시 30분
    (구유 예절로 시작, 구유 경배 예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 일시 : 12월 25일 (목) : 오전 8시, 10시
    (10시 미사는 학생들과 함께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시니어 아파트 셔틀 버스 운행합니다.

13. 송년 미사와 기도, 찬양의 시간

- 일시 : 12월 30일 (화) 저녁 7시 30분
- 올 한해를 마치면서 주님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미사와 성체강복, 찬양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송년 모임을 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면 송년 미사와 기도, 찬양의 시간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 12월 31일 (수) 저녁 7시 30분
  1월 1일 (목)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 12월 24일과 31일 (수) 오전 11시 미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봉헌됩니다.

15. 새로 오실 보좌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지난 12월 8일(월)에 원주교구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에 오실 보좌 신부님은 원종권 핀따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1월 중순 쯤에 본당에 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신부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사 전 바치는 묵주기도 시간에 이동한 다니엘 부제님과 원종권 핀따노 신부님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16. 학생 미사 안내

- 2026년 1월부터는 매달 한번씩 한국어로 본당 신부님 주례로 오후 2시 학생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신부님도 학생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아직도 예수님 맞을 준비 안되신 분 얼른 오세요

- 예수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맞이 할 준비를 못하시고 성사를 못보신 분들께서는 12월 24일(수) 오전 11시 미사 전까지 매일 미사 전에 고해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서두르세요. 24일(수) 성탄 밤 미사 전에는 성사를 보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2월 14일 (대림 제 3주일)

봉헌금	$7,166.00
대축일 미사 헌금	$3,898.00
교무금	$14,860.00
교무금 (신용카드)	$16,930.00
감사 헌금	$1,000.00
2차 헌금	$3,489.00
온라인 봉헌	$7,175.00
합계	$54,518.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2월 25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2월 26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2월 28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영상교리: 예수 그리스도
4. 예수님의 탄생 성화를 살펴보자

교중미사 예물봉헌

12/21 이번주	비엔나 1
12/28 다음주	비엔나 2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